



세계 디지털동영상 한자리에

IT월드 가족단위 관람객 인기몰이 ... 아이들과 함께 디지털세상도 직접 체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체험관 'IT월드'(과천 서울대공원내)에서 지난 4월 3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자연사박물관, 영국 내셔널 스페이스센터, 스페인 아일라 메지카 등 선진 체험학습관에서 제작해 선보여 왔던 '세계 디지털 동영상 페스타'를 개최해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몰려 매회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 아이들이 정보통신 체험관 IT월드에서 디지털 동영상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17m 초대형 돔 스크린 위에 슈퍼 컴퓨터로 작동되는 7개의 빔 프로젝트를 통해 상영되는 국내 유일의 영상관 IT월드의 돔 시어터에서 '세계 디지털 동영상 페스타'를 개최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몰려 매회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세계 디지털 동영상 페스타는 미국 자연사박물관, 영국 내셔널 스페이스센터, 스페인 아일라 메지카 등 선진 체험학습관에서 제작, 활용하고 있는 돔형태의 스크린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실감 입체영상을 국내 관객에게도 소개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마련한 행사다.

이번에 상영된 영상물은 '생명탄생의 비밀', '우주의 신비와 은하계의 비밀', '첨단 테크노뮤직의 화려한 비주얼화', '화성탐사' 등으로 과학에 대한 원초적 탐구심과 흥미는 물론 새로운 차

원의 비주얼이미지와 음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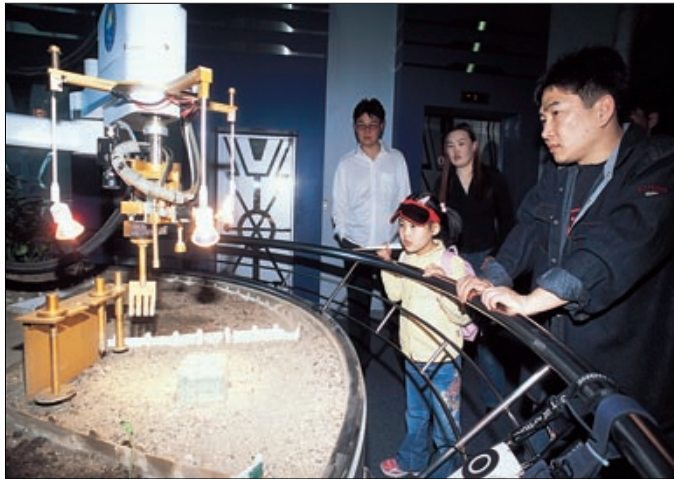
이번 상영된 영상물 중 특히 우주의 신비를 담아낸 '패스포트 투 더 유니버스'는 미국에서 200만명이 관람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것. 또 생명탄생의 비밀을 그대로 담은 '인피니티 익스프레스'는 미국 CNN방송에서 극찬할 정도로 수준 높은 영상으로 평가받은 작품이다.

이번 IT월드 내에서도 이 같은 상영작들이 인기를 모았지만 특히 인기를 끈 것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막연한 동경에서부터 최근 화성탐사까지 우주개척 역사를 실감나는 영상 속에서 본인이 직접 탐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의 비밀(Secret of Dragon)과 '화성' 등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동영상을 국내에서도 실감있게 상영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최첨단 IT기술과 장비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그래픽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총 집약돼 만들어진 미래 영상관 돔 시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돔 시어터는 직경 17m의 화면이 반구형으로 설계돼 7개의 빔 프로젝트를 통해 조각영상을 이음새 없이 하나로 합쳐주는 옛 지블랜딩 기술을 이용해 관람객은 마치 한 영상만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화면 속에 자신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하는 영상관이다.

지난 4월 11일로 세계 동영상 페스타는 막을 내렸지만 한국문화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IT월드는 돔 시어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상을 계속적으로 상영할 계획이다.

인터랙티브 영상은 박진감 넘치는 고품질의 실감영상과 함께 관람객의 호응에 따라 스토리 전개가 변화되는 것.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선택이 필요할 땐 좌석 오른쪽에 빨강, 노랑, 초록 버튼을 눌러서 관람객 스스로가 이야기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 IT월드는 돔 시어터 외에도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 많아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어진 아주 이색적인 영상이다. IT월드의 돔 시어터는 스토리 진행 중간에 3개의 버튼 중 1개를 선택해 스토리 방향을 결정하게 돼 있다. 과천 서울대 공원에 위치한 IT월드는 돔 시어터 외에도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 많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공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자연스럽게 과학과 친밀해질 수 있는 정보통신 체험학습관으로 주말마다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대공원에서 자연과 동물을 한꺼번에 즐길 수도 있어 가족나들이에 더욱 권할 만하다.

IT월드에는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터넷 원리 체험관'을 비롯해 첨단정보통신기술로 구현된 미래학교 'IT스쿨', 다양한 멀티미디어 및 영상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카, VR템플 등 40여개의 전시물과 영상관 등 다채로운 설비로 꾸며져 있다.

'인터넷 원리체험관'은 디지털 기술을 공굴리기 놀이로 표현했다. '0'과 '1'의 숫자로 표시된 흰 공과 검은 공을 레일 위로

주고 받다 보면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또 '매직박스'는 쇼와 영상을 통해 디지털, 화상 압축, 광전송 등 멀티미디어를 이루는 여러 기술을 알기 쉽게 가르쳐 준다.

'IT존'과 'IT스쿨'은 미래의 교육 환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교실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새소리를 듣고 별풍별을 공부할 수 있다. 디지털 도서관인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는 보고 싶은 자료를 주문하면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클릭 한번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스튜디오'도 인기다. 파란 스크린 앞에서 움직이면 벽에 있는 모니터에서 가상 환경이 배경으로 합성돼 비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상 풍선을 온 몸으로 쳐 올리는 게임은 아이들의 흥미를 높인다.

'다이노 매직볼'에서는 바닥에 영상으로 투사된 공이 서 있는 사람의 발을 저절로 피해 굴러다닌다. 공이 물체의 외곽선을 자동으로 인식해 피해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을 한번 밟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뛰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시뮬레이션 극장 '모션 라이드'는 해저와 우주공간 영화를 보는 동안 영상에 따라 의자가 움직여 실제 탐사선을 탄듯 짜릿하다.

또 정부의 IT정책을 소개하는 '코리아IT비전', 정보 보안과 통신예절을 배우는 'IT프론티어' 코너도 있다.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라 IT월드가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IT기술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강의와 실험, 전시물 관람 등으로 구성된 '미래사회 체험'과 '정보과학교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린다. 관람료는 입장료 1,500원에 돔 시어터 이용 1,000원이다. 30명 이상 단체는 30% 할인된다.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람객은 참가비 5,000~6,000원을 내면 입장료가 무료다. 서울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문의 02-2105-4443~4



▲ 정보통신체험관 IT월드의 디지털 돔 시어터